

ISSN 1229-019X

# 구비문학연구

제 60 집

[별쇄본]

아시아 열두 띠 설화의 동물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문화교육

-이주민 구술설화 자료를 중심으로-

김정은

한국구비문학회

2021. 03. 31.

# 아시아 열두 띠 설화의 동물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문화교육\*

-이주민 구술설화 자료를 중심으로-\*\*

김정은\*\*\*

## 차례

1. 서론
2. 이주민 구술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교수전략
  - 2.1. 아시아 <열두 띠 유래> 이주민 설화와 상호문화 감수성의 연계
  - 2.2. '동물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교육 설계
3. 열두 띠 설화 동물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문화교육 내용
  - 3.1. 아시아 <열두 띠 유래> 설화의 구술 양상
  - 3.2. 동물 표상에 함의된 문화인식의 맥락 생성
  - 3.3. 쥐 표상을 활용한 문화적 매개의 가치생산
4. 결론

## <논문개요>

이 글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구술한 <열두 띠 유래>를 활용해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는 교수전략으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이 구술한 열두 띠 설화를 제시하고, 문화 인식의 맥락과 통합적 가치를 생성하는 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한 연구이다. 이주민이 구술한 <열두 띠 유래> 설화들의 상징적 표상은 '동물'로 나타나며, 동물 대결의 변이로 문화적 가치를 차이 나게 전승하고 있어,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는데 좋은 텍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20S1A5B5A16084383)

\*\* 이 논문은 한국문학회지학회 제204회 학술대회(2020.12.26.)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가 깊어지도록 좌장을 맡아주신 충북대학교 오세정 선생님과 지정토론을 해주신 경희대학교 이성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서사와문학회지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스트임을 논했다. 이때 기호화된 동물 표상의 문화적 함의를 맥락화 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 감수성이 신장될 수 있게 하는 교수전략을 5단계로 제시했다.

이주민이 구술한 아시아 <열두 띠 유래>를 중심으로 변이가 생기는 동물의 표상이 어떤 대립자질을 형성하며, 각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해석해 보는 상호문화 감수성의 내용을 단계별로 구체화해 보았다. 이주민이 구술한 베트남 설화에서는 한국의 설화와 비슷하게 '쥐와 물소'가 대립하지만, 일본, 중국의 설화에서는 '쥐와 고양이'의 대립구도가 보이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카자흐스탄, 몽골의 이야기는 소가 아닌, '쥐와 낙타'의 대립구도가 나타난다.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의 설화를 접하게 되면, 열두 동물의 '열두 자리와 들어가고자 하는 열세 동물의 대립(12:13)'으로 문화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대립은 다시 '문화의 안 : 문화의 밖'의 대립자질을 생성하며, 문화의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보게 하고, 자문화와 타문화의 관계를 통찰하게 한다고 해석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전승된 '쥐와 소'의 대결구도가 가지는 동물표상의 문화적 함의를 중앙아시아의 '쥐와 낙타'의 대결구도와 연결했을 때 어떤 의미가 생성되는지도 주목해 보았다. 쥐는 소처럼 농경문화를, 낙타처럼 유목문화를 대변하지 않으며, 특정 문화를 대표하는 뿌리 깊은 속성이 없지만, 오히려 모든 동물과 소통하고 넓은 시야로 흐름을 파악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석했다. 쥐는 모든 동물표상으로 상징되는 타문화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모든 나라의 이야기에서 열두 띠 문화의 수장이 된 것으로 맥락을 생성하고, 이와 같은 쥐의 특성을 상호문화 감수성에서 말하는 마지막 통합의 단계인 '문화적 매개'의 태도와 연결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 중 아시아의 열두 띠 설화가 상호문화 감수성을 어떻게 신장할 수 있는지의 교육내용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핵심어: 아시아 열두 띠, 상호문화 감수성, 문화적 매개, 이주민 구술설화, 동물표상, 몽골설화, 카자흐스탄 설화, 중국설화, 일본 설화, 베트남 설화

## 1. 서론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백오십만 명이 훨씬 넘는 이주민들이 한국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곧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sup>1)</sup>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은 당연시되었던 단일민족의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 한 나라의 인구에서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본다. 연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법무부에 따르면 2019

관점에서 자문화를 중심으로 사유해 왔던 삶의 방식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질문하게 한다. 단일민족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다문화 사회에 살아간다면, 정주민으로서 소수인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이게도 하고, 자문화의 우수성을 과장하기도 쉽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를 고수할 때는 기존의 문화적 세계관을 보호하기 위해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이분법적으로 타문화를 폄하하거나 숭상하며, 두 문화 사이의 경계를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sup>2)</sup>,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베넷의 상호문화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이론은 이처럼 문화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태도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정(Denial of difference)과 방어(Defense against differences)'라고 명명한다.<sup>3)</sup>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정과 방어의 태도를 유지한 채 서로 다

---

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2,524,656명(2018년 약 2,308,206)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87% (2018년 약 4.5%) 이상이 외국인으로, 5%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8쪽, 2020. 6. 30.)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2012년부터 8년 연속 줄어드는 데 반해, 2010년 이후 전체 혼인에서 국제 결혼 건수는 점점 늘어 2020년에는 10.3%로 10%로 넘어서고 있다. 잠시 COVID-19로 주춤하지만, 앞으로도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남성의 국제 혼인 의존도 심화의 배경에는 '결혼 기피 현상 속의 성비 불균형 심화'가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제 혼인 의존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태열, 「최근 국제 혼인 증가의 특징」, KIRI 리포트(포커스), 2020, 23-31쪽.)

2) 한용택, 『Bennett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시안』, 『시민인문학』 32,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15쪽.

3) 상호문화 감수성은 베넷의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용어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게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 감수성, 상호문화 감수성, 상호문화적 감수성, 문화간 감수성, 문화적 감수성 등으로 번역되는데 본 논의에서는 '상호문화 감수성'으로 통용한다. 상호문화 감수성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Bennett, M. J.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ME: Intercultural Press, 1993, pp.21~71.

또, 다문화 시대에 상호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베넷의 이론을 소개하며, 상호문화적 감수성 시안을 체계화한 논의를 참고했다. (한용택, 『Bennett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시안』, 『시민인문학』 32,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07-136쪽.)

른 문화와 만나게 된다면, 문화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문화는 정체되며, 다문화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문화 시대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문화와 다른 이질적인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역동적 소통을 모색하는 일이다. 구비설화는 각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상징적이고 심층적인 방식으로 응축한 구비설화는 소통, 교류, 교감, 공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미 다문화연구와 문화교육 연구에서 이미 많은 주목을<sup>4)</sup> 받아왔다. 그중 이성희는 타인의 문화를 아는 것을 넘어서 타인과 맺는 관계, 일상에서 맺는 관계가 상호문화의 핵심이라고 논한 바 있고,<sup>5)</sup> 최원오는 세계시민으로서 개인이 갖춰야 할 반면견, 평등,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위해 외국의 구비문학을 소개하는 작업과 구비문학을 매개로 한 다문화적 소통과 교육연계 방안<sup>6)</sup>의 필요성을 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4) 많은 연구가 있지만 그중 본 논의에서 상호문화의 관점에서 주목한 구비문학의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 이혜란, 「다문화사회의 설화교육 방안 연구-한국<아기장수전설>과 필리핀 <알리구온전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교육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0. ; 석창훈, 『동아시아 신화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 교육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0,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 양민정, 「『나무꾼과 선녀』형 설화의 비교를 통한 다문화 가정의 가족의 가족의식 교육 연구-한국, 베트남, 몽골 설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 연구』 15-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2. ; 오정미, 「설화를 통한 정주자 대상의 문화교육 : 설화<밥 안 먹는 색시>를 대상으로」, 『동화와번역』 28,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4. ; 이성희, 「다문화역량 신장을 위한 동아시아 이야기 콘텐츠의 주제론적 접근 : <콩쥐팍쥐>와 <헛간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문화와평화』 11,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 하은하, 「한국어교육을 위한 동아시아 설화 비교 연구-한국, 베트남, 태국의 <나무꾼과 선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31, 서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7. ; 나수호,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체성과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 최원오, 「구비문학을 통한 다문화적 소통 방향에 대한 제언」,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59-82쪽. ; 이성희, 「다문화시대 상호문화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 구비문학 읽기 -<백신랑-AT425.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구렁덩덩신선비>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5) 이성희, 위의 논문, 340쪽.

연구 방향이 앞으로 다문화 시대에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에 사는 이주민이 구술한 모국의 설화를 매개로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는 문화교육의 방법을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먼저 상호문화 감수성의 이론에 주목한 이유는 문화적 정체성을 자문화 중심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이질적인 타문화와의 관계와 소통 속에서 끊임 없이 다양한 정체성을 재구성해 가고 통합해가는 과정으로 본다는 점이다.<sup>7)</sup>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한다면, 문화적 범주의 경계를 유연하게 하는 복수의 다양한 준거로, 한 국가 내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의 가치와 상징을 이해하는 다문화적 관점과 감정을 가지게 하는 태도를 형성하며<sup>8)</sup>, 자문화 중심의 관점에서 민족상대주의 시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본 논의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이질적인 타문화들의 가치와 상징을 접하며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의 설화를 직간접적으로 소통해 가는 길을 제안하고 자 한다.

본 연구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토대사업인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를 집대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을 만나서 이주민들의 모국의 설화를 들을 수 있었다. 모국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들려줄 결혼이주민을 다문화도서관, 다문화소통센터, YWCA, 다문화 배움터, 이주민 인권단체, 다문화동화사업, 종교단체 등을 통해 만날 수 있었고, 결혼이주민으로 접할 수 없는 나라의 경우는 여러 대학의 인맥을 통해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을 만나, 각국에서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언어적 장벽으로 한국사회에서 접할 수 없었던 설화를 전승해주는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구비문학의 새롭고 의미 있는 주체로 호명될 수 있었고<sup>9)</sup>, 조사자들의 상호문화 감수성 또한 신장할

6) 최원오, 앞의 논문, 75-79쪽.

7) 장현정·우신영,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765쪽.

8) 한용택, 앞의 논문, 122-123쪽.

수 있었다.<sup>10)</sup>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채록하고 정리한 설화들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공감하며 교류하게 하는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sup>11)</sup> 아시아 이주민들이 한국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설화에는, 한국인이 서양의 근대적 잣대, 자문화우월주의, 물신화 등에 가로막혀서 그동안 사유하지 못했던 문화적 편견을 돌아보게 하는 문화적 소통 의지가 담겨 있다. 이주민들이 문화적 매개자가 되어 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이 들려준 설화에는 각국의 세계관, 가치관, 문화관이 상징적으로 표상되어 있어, 정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방향이거나 정주민의 문화를 이주민에게 전달하는 기존 관점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주민 설화를 통해 그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인인 정주민에게 어떤 가치와 정서

9) 김정은, 「이주민 구술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201-238쪽.

10) 김영순·오영섭,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 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8-3, 한국국제교류문학학회, 2019.

11)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주민 대상 구비문학 현지조사를 한 결과, 27개국의 136명의 체보자자 구술한 1493편의 자료들을 집대성할 수 있었다. 이주민 구술설화 대상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동훈,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 오정미,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한국구비문학학회, 2017; 김정은, 「이주민 구술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 박현숙, 「이주민 구술설화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 김민수,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가능성」, 『문학치료연구』 4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 김영순·오영섭,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 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8-3, 한국국제교류문학학회, 2019 ; 황혜진, 「베트남 이주민 구술설화 자료의 현황과 성격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4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 오정미,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2020.

최근에는 본 연구팀이 이주민을 만나며 설화를 조사했던 진주 YWCA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확장되어, '엄마 나라'의 설화집을 구성하고, 자녀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과 소통하는 연구도 이어졌다. (정근미, 「모국 설화집 구성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주의 문화 교육 방안 연구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대상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20.)

를 전달하며 소통하고자 하는지에 주목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주민이 들려준 구비설화에는 각 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상징적이고 심층적인 방식으로 응축되어 있다. 이를 활용해 한국을 구성하는 이주민이 들려준 설화로 그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경험해보고, 각 나라의 문화적 함의를 소통하는 관계의 장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한국에 사는 아시아 이주민들이 한국어로 구술한 모국의 설화에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싶은 소통의 의지가 반영된 만큼 상호문화를 교류하는 데 아주 유의미한 자료라 판단되었다. 본 논의에서는 이주민이 구술한 모국의 설화 중에 아시아 <열두 띠 유래>의 상징적 표상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를 맥락화 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한 방법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이주민이 구술한 여러 설화중에서 이 연구의 기초자료인 <열두 띠 유래> 설화는 아시아 광포 설화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다. 열두 띠가 ‘이야기 형태’로 아시아 전역에서 전승되는지는 선행연구만으로 알 수 없지만, ‘십이지(十二地)’의 문화를 논한 연구들을 보면 인도, 태국, 중국의 소수민족만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이집트, 멕시코에서도 열두 동물들이 조금씩 다르게 전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이미 민속학점 관점에서 십이지의 기원에 관한 연구<sup>13)</sup>와 십이지 한국의 띠동물이 한국문화 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민속론의 입장에서 상징체계가 논의되었고<sup>14)</sup>,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민담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적 의미가 명리학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sup>15)</sup> 일본의 십이 동물 민담 형상<sup>16)</sup>, 중국의 띠설

12) 이종관, 「십이지(十二地)와 “띠” 문화에 관한 근원적 고찰」, 『인문사회』 21,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13) 윤창열, 「십간과 십이지에 관한 고찰」, 『논문집』 4, 대전대학교, 1985.

14) 천진기, 『韓國 띠動物의 象徵體系 研究』, 국내박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1 ; 이종관, 「십이지(十二地)와 “띠” 문화에 관한 근원적 고찰」, 『인문사회』 21,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 이찬욱, 『한국의 띠문화』, 황금시대, 1999.

15) 이종관,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의 십이지 동물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화에 나타난 쥐의 형상 연구<sup>17)</sup>, 베트남과 한국의 띠문화와 자국의 띠문화를 비교<sup>18)</sup>하는 논의들도 아시아 광포설화를 소개하고 해석한 연구로 주목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열두 띠는 각 나라의 풍토, 환경,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열두 띠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여러 문화적 관계 속에서 기호의 상징체계로 문화정보를 함의하고 있다는<sup>19)</sup>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열두 띠 유래〉속 동물들은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정보를 표상하고 있어, 그 문화적 함의를 풀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주민이 구술한 아시아의 〈열두 띠 유래〉설화는 기호화된 같은 동물이라도 문화의 상징적 의미는 비슷한 서사구조 속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전승된다. 서사를 끌어가는 사건도 바뀌고, 아시아 각 나라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동물의 상징적 속성이 바뀌기도 한다. 그동안 소설과 동화를 활용해서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는 선행연구들은<sup>20)</sup> 서사작품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능력을 함양하는 교수전략을 취했다. 이 글에서는 이주민이 문화적 주체가 되어 구술한 〈열두 띠 유래〉에서 아시아 각 나라가 동물표상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019.

16) 송영숙, 「일본의 십이지(十二支) 동물 민담의 유형 및 양상」, 국내석사학위논문 全南大學校, 2005.

17) 양희석, 「띠와 쥐의 설화」, 『中國文學』 65, 아시아문화학술원, 2010.

18) To Minh Tung, 구사희, 「한국과 베트남의 띠 문화 비교: 한국의 토끼 띠와 베트남의 고양이 띠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1, 한국문화융합회, 2019.

19) 천진기, 앞의 논문, 2쪽.

20) 현재 상호문화 감수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논의처럼 문학을 연계해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는 연구들이 있다. (장현정·우신영,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5,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2019, 759-788쪽; 김하나, 이인재, 「교과교육학 : 초등학교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온라인 그림동화 프로그램의 효과」, 『윤리교육연구』 33, 2014, 1-25쪽; 선주원, 「상호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학교육의 내용과 학습 활동」, 『국제이해연구』 1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7, 89-120쪽; 조영미,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대만 대학교의 부전공 과정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79, 이중언어학회, 2020, 249-276쪽; 고경민, 「동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교육 방안 연구 -유학생 대상의 플립드 러닝 방식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39, 동화와번역연구소, 2020, 39-62쪽.)

으로 어떻게 문화적 차이를 응축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살펴보고, 자문화와 타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문화의 안팎을 사유할 수 있는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상호문화감수성이 신장될 수 있는 문화교육의 내용을 생성해 보고자 한다.

## 2. 아시아 〈열두 띠 유래〉 구술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교수전략

### 2.1. 아시아 〈열두 띠 유래〉 이주민 설화와 상호문화 감수성의 연계

‘상호문화’라는 용어는 다문화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어 한국에 다양한 용어로 소개되고 있는 최근의 학문적 개념이다. 그러나 이 논의 이전부터 인간은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한 개인이 타인, 타자와 가지는 차이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처럼, 상호문화 관점에서 문화정체성은 형성되고 바뀌어 갈 수 있고,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문화정체성은 타문화·타자와의 관계 덕분에 늘 재생성되는 것으로<sup>21)</sup>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상호문화능력,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상호문화 감수성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이론은 베넷(Milton J. Bennett)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DMIS :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이다.<sup>22)</sup> 베넷의 이론은

21) Chaves, Rose-Marie., *L'interculturel en classe*, PUG, 2013; 서영지 옮김, 『알기쉬운 교실상호문화교육』, 북코리아, 2019, 32쪽.

22) 베넷은 현재 인디애나 대학교 교수로 그의 저서는 현재 『다문화교육 : 이론과 실제』(학지사)로 번역출간되었다. 베넷의 DMIS 이론은 상호문화적 감수성, 상호문화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상호문화역량, 문화적 강수성, 다문화의사소통능력 등으로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는데, 대체로 인지, 정서 행동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 내용을 밝힌 바 있어서, 그 이론적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아시아 이주민이 구술한 〈열두 띠 유래〉 설화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밝혀보고자 한다.

베넷의 DMIS 이론은 상호문화적 감수성, 상호문화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상호문화역량, 문화적 감수성, 다문화의사소통능력 등으로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는데, 대체로 인지, 정서 행동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sup>23)</sup> 베넷은 상호문화 감수성을 복수의 집단에서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 경향성으로 정의한다. 그는 한 사람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며,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상호적 영향 관계에 따라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는 역동성에 초점을 두는 관점을 취한다. 상호문화 감수성은 ‘부정→방어→최소화→수용→적용→통합’이라는 여섯 개의 발달 단계를 거치며, ‘자민족주의’에서 ‘민족상대주의’<sup>24)</sup> 혹은 “자문화중심”에서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 각 발달 단계의 특징에 관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단계별 키워드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5)</sup>

#### 〈표 1〉 Bennett의 DMIS

1단계 : 차이에 대한 부정 Denial of difference : 무관심, 회피
--

요소라 할 수 있다. (김영순·오영섭,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 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8-3, 한국국제교류문화학회, 2019, 49쪽.)

23) 김영순·오영섭, 위의 논문, 49쪽.

24) 김영순·오영섭, 위의 논문, 50쪽.

25) 한용택, 「Bennett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시안」, 『시민인문학』 32,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14쪽 ; 장현정·우신영,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5,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765쪽.

2단계 : 차이에 대한 방어 Defense against differences : 비하, 우월감

3단계 : 차이에 대한 최소화 Minimization of differences : 물리적 보편주의, 초월적 보편주의-->차이점을 자신의 문화적 패턴으로 해석함

4단계 : 차이에 대한 수용 Acceptance of differences: 행동 차이에 대한 존중, 가치 차이에 대한 존중-->세계관을 분명히 이해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5단계 : 차이에 대한 적응 Adapting to differences : 공감, 다원주의, 대안적 세계관으로 자신의 사고 틀을 전환 ---> 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6단계 : 차이에 대한 통합의 단계 Integration of the difference : 맥락적 평가, 문화적 매개자--> 탈중심화, 주변화

상호문화 감수성의 개념은 인지, 정서, 행동 개념 모두를 포함하며, 이주민과 정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때 발전해 가는 개념이다. 이때 서로 다른 문화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관계’하는 것에서부터 상호문화의 교류는 시작된다.

본 논의의 기본 자료인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들은 기억에 각인되기 쉬운 이야기의 형식으로, 그 지역의 자연물, 인공물, 인물의 사건 등을 응축해 각 민족이 살아온 세계관, 가치관, 문화를 상징적으로 표상하며 전승되는 구축물이다.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를 직접 들으면 좋겠지만, 조사한 자료의 녹음한 것을 듣거나 텍스트화된 자료를 읽고 난 후에 이주민의 설화가 잘 떠오른다면, 그 역시 상호문화의 교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상호문화에서 이주민이 ‘화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중시하며 ‘구술성’의 의미를 논했던 마달레나 드 카를로(Maddalena De Carlo)의 관점으로<sup>26)</sup> 볼 때,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에는 한국인에게 교환하고자 했던 가치를 설화의 ‘상징적 표상’으로 함께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설화를 한국의 학자나 번역가 등에 의해 한국어로 출판된 설화

26) Carlo, *Maddalena de, Interculturel*, CLE INTERNATIONAL, 1998; 장한업 옮김,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한울, 2011. 115쪽.

와 한국을 구성하는 이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고 한국어로 구술한 설화를 정리한 자료는 감수성을 신장하는데 명확한 차이점을 가진다. 이주민들에게 ‘모국의 설화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과정은 자신의 존재적 기반을 이루는 삶과 문화를 추체험하면서 새롭게 의미화하는 과정’<sup>27)</sup>으로, 이주민이 모국의 설화를 전승하는 주체가 되어 한국인에게 알리고 싶은 설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주민에게 있어 모국의 설화를 구연하는 것은 그가 이주민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는 화자가 되어, 한국과는 다른 모국의 사유방식과 문화를 전달하고 싶은 맥락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소통의 맥락을 알아차릴 때,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한국의 문화와 삶을 비교해 보고 성찰해 볼 수 있게 된다.

설화를 듣는 순간에 이주민이 교환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각인된 설화의 화소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타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열두 띠 이야기에서는 동물 화소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주민의 설화를 듣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1단계 부정과 2단계 방어의 태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주민들은 <열두 띠 유래>처럼 여러 나라에서 전승되는 광포설화나 한국에서 유명한 설화와 비슷한 모국의 설화를 알리고자 할 때가 많다. 이런 구술에는 한국과 비슷한 서사의 유사성에 기대어,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한국과 친밀한 감정을 교류하며 문화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감수성이 기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문화 중심의 마지막 단계인 차이에 대한 ‘최소화’의 태도이다. 표면으로 보이는 유사성의 확인은 문화적 거리를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게 하며<sup>28)</sup>, 아시아인은 비슷하다는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는 의미가 있다. 아시아에 비슷한 이야기가 전승된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

27) 신동훈, 앞의 논문, 295쪽.

28) 유사점은 성찰의 과정을 요구 하지만 차이점은 단순한 확인만으로도 충분하다.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교육과학사, 2014, 155-156쪽.)

지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면, 3단계인 ‘차이에 대한 최소화’ 하는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열두 띠 유래〉와 같은 구비설화가 상호문화 감수성에 좋은 텍스트인 지점은 동물화소가 같다고 하더라도, ‘구술성’으로 인간의 욕망과 문화를 반영하는 가변성이 있다는 점이다.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상징적 의미가 함의 되는 것이다. 이주민은 모국의 설화를 구술하면서, ‘차이에 대한 최소화’로 친밀함을 전제하고, ‘다름’, ‘차이’를 인식하게 함으로 모국의 문화, 세계관, 가치관, 풍토와 정서가 무엇인지를 설화를 통해 알리게 된 것이다. 〈열두 띠 유래〉의 동물들이 나라의 풍토와 정서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고, 서사의 초점이 되는 동물들도 다르다. 따라서 이야기의 공유를 통해 공통된 동물이 서사의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sup>29)</sup> 되는 것이다. 이때 4단계인 문화적 ‘차이에 대해 수용’하는 감수성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열두 띠 설화를 알게 되어, ‘저 나라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구나!’, 혹은 ‘유목민족은 낙타가 중요하지.’라는 차이에 대한 수용의 반응만으로 상호문화가 모두 소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수용의 태도는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지만, 다문화주의의 모자이크식 공존의 상태라 생각할 수 있다. 이주민 구술설화는 나라마다 다른 표상으로 전해지는 ‘설화의 미적 깊이와 감응력이 문화적 가치생산 및 발현과정’<sup>30)</sup>으로 나아

29) 최원오는 이를 ‘높은 수준의 문화적 의사소통’으로 보고, 한국과 동남아 국가는 주식인 쌀이므로 쌀과 관련된 설화나 민요 등의 자료들을 모아, 또한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설화는 어느 민족이건 전승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다문화적 소통의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최원오, 「구비문학을 통한 다문화적 소통 방향에 대한 제언」,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72쪽.)

30) 신동훈, 앞의 논문, 295쪽.

가게 하는 역동성이 있다. 설화를 통해 그들이 가진 세계관을 공감하다 보면 복수의 준거를 가지게 되고, 삶의 본질이나 원형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그 나라 설화의 가치로 해석해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문화와 타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 문화의 안팎을 유연하게 바라보는 경험을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단계와 통합의 단계로 나아갈 때, 문화적 상징의 차이를 즐기며 문화를 매개하는 통합의 태도를 확장해 가는 문화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이주민이 한국과 다른 문화를 자국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구술한 텍스트도 의미가 있지만, 설화로 구술한 내용의 텍스트는 각 나라의 문화적 맥락을 엿볼 수 있는 동물 화소 등의 상징적 의미를 맥락화 해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문화적 소통을 이어가며 다양한 문화적 준거를 내재화하며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 2.2. ‘동물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교육 설계

이주민이 설화를 구술하는 것은 ‘상징적 표상’과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서로 엮히게 하는 교환과정<sup>31)</sup>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주민이 구술한 <열두 띠 유래> 설화들의 상징적 표상은 ‘동물’로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는데, 이때 다양한 동물 표상이 다른 나라의 문화들과 어떻게 다른지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다시 ‘자기 문화에 대한 발견과 이해로 이어진다’<sup>32)</sup>고 할 수 있다. 이때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자민족 중심의 문화적 틀의 경계를 유연하게 하는 복수의 준거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때 각 나라의 문화가 기호화된 동물 표상의 문화적 함의를 맥락화하여 해석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관점이다.

31) Carlo-Maddalena de, 앞의 책, 53쪽.

32) 한용택, 앞의 논문, 120쪽.

본 논의에서 주목한 것은 이주민 구술설화 자료 중에 아시아 광포 설화인 <열두 띠 유래>에 나타난 ‘동물표상’으로, ‘동물’ 상징에 각 문화가 반영되어 서사의 변이가 발생하는 것에서 문화적 경계를 유연하게 하고, 복수의 준거를 경험하도록 하는 교수전략이다. <열두 띠 유래>를 여러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로 듣거나 읽고 이야기해 보는 과정은, 각 나라의 문화마다 동물이 어떻게 ‘변이’되어 ‘표상’되어 있는지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된다. 인간은 인간의 인지로 모두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점을 상징으로<sup>33)</sup> 표현하는데, 구비설화는 화소의 상징성을 통해 인지로 모두 정의할 수 없는 문화와 세계관을 응축한다. 그런데 상징의 응축성은 오히려 각각의 삶의 방식으로 빚대어 보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열두 띠 이야기에는 문화와 세계관이 동물 화소로 표상되어 있다. 저마다의 문화적 방식이 동물에 투영되어, 그 문화권에서 친근하게 바라보는 동물을 통해 문화를 사유하는 방식까지 전승되고 있다.

동물에 대한 문화적 기호와 상징은 민족을 이루는 구성원에게 내재하여 있다. 문화적으로 친근한 동물과 거리감이 있는 동물들이 있는 것이다. 설화의 동물은 동물이면서도 인간의 욕망과 문화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표상을 통해 자문화와 타문화 간의 경계를 유연하게 하고, 동물 표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타문화의 가치로 바꿔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다른 문화에 잘 접속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복수적 가치를 생성하며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열두 띠 유래> 설화는 내용의 축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질문인 ‘왜 이 동물들이 열두 띠가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서사구조로 되어있다. 설화에 담긴 문화적 함의 역시 동물표상에 대한 궁금증을 서사적 질문으로 만들어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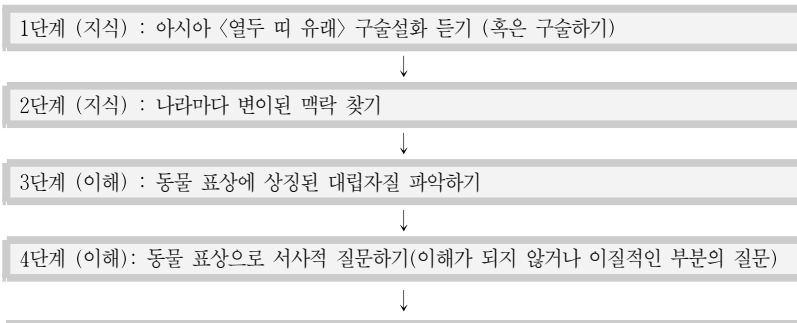
---

33) Jung, Carl Gustav, *Man and his symbols*, DELL, 2005;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07, 23쪽.



본 논의를 위해 열두 띠의 동물표상을 비교하여 해석해 보는 과정에서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수업을 구성하고 실행해 보았다. 대학강의에서 설계했지만,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2020년 두 학기 동안 한 번의 전공 수업<sup>34)</sup>과 세 번의 교양 수업<sup>35)</sup>에서 아시아의 〈열두 띠 유래〉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을 시행해 보며, 동물표상을 통해 문화적 상징의 의미 맥락을 재구성해 보는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네 과목에서 수업을 진행한 과정에서, 〈열두 띠 유래〉 구술설화를 활용해서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해 보는 문화교육의 교수전략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1단계와 2단계는 민족적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라면, 3단계와 4단계는 자문화와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략으로 동물표상의 의미를 대립자질로 파악하고 그 의미가 가진 함의를 질문해 보는 단계이다. 5단계는 통합의 전략으로 민족적 경계를 넘나들며 문화를 소통했을 때 새롭게 가치를 생성해 가는 단계이다.

표 2 아시아 〈열두 띠 유래〉를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문화교육 단계



34) 1학기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테마고전특강〉(40명)은 나라별로 이주민 구술설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설화와 비교하며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는 강의로 구성되었다.

35) 1, 2학기 건국대 〈이야기와 인간관계〉 78명, 2학기 한국외국어대 〈문예창작의 이론과 실제〉의 수업에서 5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5단계 (통합) : 아시아 동물 표상의 상징을 문화적 상징으로 맥락화하여 가치 생성하기

1단계는 아시아 지역에 널리 유사한 형태로 퍼져 있는 광포설화의 특징을 가진 〈열두 띠 유래〉 설화를 듣거나 읽으며 접하게 되는 단계이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비슷하게 전승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멀다고 느꼈던 나라의 문화에 대해 친밀감과 연대의식을 가질 때, 상호문화 감수성 중 ‘차이에 대한 최소화’의 경험을 할 수 있다. 2단계는 설화의 구술적 특성으로 각 나라의 문화가 담겨 변이된 맥락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때 각 문화의 다름을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차이에 대한 수용’을 경험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열두 띠 유래〉의 이주민 설화의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동물의 상징성이 어떤 가치를 생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대립자질’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신화학자인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 신화학에서 대립자질에 주목한 바 있다.<sup>36)</sup> 신화학자인 나가자와 신이치는 대칭성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막스뮈티는 양극성으로 다르게 표현하였지만, 설화로 문화와 삶을 통찰하게 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서로 대립점을 이루면서 의미를 생성한다는 것이 ‘대립자질’에 대한 기본 발상이다.<sup>37)</sup> 열두 띠 설화 동물들 간의 경쟁이 어떤 대립자질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에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는 것이 3단계이다.

4단계는 모국의 설화와 다른 지점이나 문화적 차이가 느껴져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지점들과 서사적으로 의문이 생기는 점을 동물 표상을 넣어 서사적 질문을 해 보는 것이다. 대립자질로 인해 생성되는 삶의 문제, 문화의 가치 등에 대해 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사적 질문을 생성하고 답을 해보며, 설화를 스스로 해석해 보는 방식인데, 자민족 중심이 아닌 민족상

36) Lévi-Strauss, Claude., *(La) pansee sauvage*, Plon, 1983; 안정남 옮김, 『야생의 사고』, 1999, 한길사.

37) 김정은, 「설화의 서사문법을 활용한 자기발견과 치유의 이야기 창작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쪽.

대주의 관점에서 열두 띠 설화에서는 핵심화소인 동물들간의 대립에서 응축되어 생성되는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될 수 있다.

5단계는 자문화와 타문화로 구분하는 경계를 넘어서, 아시아 설화라는 커다란 문화의 틀로 문화인식을 확장하고, 동물 표상을 해석하는 문화적 준거를 하나 이상이 되어 보게 하는 것이다. 이때 화소의 상징을 통해 타문화의 접속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세계관을 통합해 보는 문화적 해석을 맥락화하며 가치를 생성하는 과정을 경험해보면서, '차이에 대한 적응과 통합'의 상호문화 감수성의 태도를 획득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상호문화 감수성을 실현해 보는 5단계 과정의 문화교육 내용을 〈열두 띠의 유래〉 설화를 활용하여, 다음 장에서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다.

### 3. 열두 띠 설화 동물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문화교육 내용

#### 3.1. 아시아 〈열두 띠 유래〉 설화의 구술 양상

본 연구의 기초자료인 아시아의 〈열두 띠 유래〉는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인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구축' (2016년 9월-2019년 8월/ 이하 '이주민설화조사')에서 집대성한 전체 1493편의 자료 중 15편에 해당한다. 1493편의 모든 자료는 곧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DB화된 각 나라의 설화별로 전사한 한글파일, 음성파일, 동영상파일(일부)이 무료로 공개될 예정으로(<http://waks.aks.ac.kr>), 나라, 제보자, 제목, 주제어로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출판물 총서로 '다문화 구비문학 대계'(가안) 20권이 곧 출간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 문화교육의 자료와 설화 비교연구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본 연구의 기본 텍스트는 15편인데, 공동

구연한 베트남 설화의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이주민이 들려준 이야기로, 조사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아시아 〈열두띠의 유래〉 이주민 구술설화 조사현황

자료 번호	제보자 이름 (성별)	국적	이주 형태	설화제목	조사 지역
1	수호바타르 알탄바가나(여)	몽골	결혼	낙타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한 이유	강원도
2	멀얼게렐(여)	몽골	결혼	낙타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한 이유	인천
3	바트(남)	몽골	노동	낙타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한 이유	경기도
4	게멜타(여)	몽골	결혼	낙타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한 이유	경기도
5	온다르마(여)	몽골	결혼	낙타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한 이유	경기도
6	툽신자르갈(여)	몽골	결혼	낙타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한 이유	강원도
7	아쭈바이에바(여)	카자흐스탄	유학	카자흐스탄에 여섯 개의 동물 띠가 있는 이유	서울
8	굴지라(여)	카자흐스탄	유학	낙타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한 이유	경상북도
9	호티홍녀(여) +엔티터번(여)	베트남	결혼	쥐가 열두 띠의 첫 번째가 된 이유	전라남도
10	곤도사끼에(여)	일본	결혼	고양이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한 이유	강원도
11	마즈다 타마미(여)	일본	결혼	고양이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한 이유	경상북도
12	류정애(여)	중국B	결혼	열두 띠 동물과 천적	경기도
13	채가오(여)	홍콩	유학	쥐가 열두 띠의 첫 번째가 된 이유	서울
14	킴나이키	캄보디아	결혼	왕이 된 돼지 신랑과 열두 띠 유래	강원도
15	텅쑉레앙(여)	캄보디아	결혼	왕이 된 돼지 신랑과 열두 띠 유래 (돼지가 마지막 띠에 들어간 이유)	경기도

13편의 서사적 흐름과 다른 이야기는 캄보디아 설화 2편이다. 다른 나라 이야기에서는 경쟁으로 첫 번째 띠가 정해지는 이야기인데, 캄보디아 설화 2편은 열두 띠의 마지막에 돼지가 들어가게 된 이유를 풀어낸다. 캄보디아 설화는 〈구렁덩딩 신선비〉와 비슷한 서사구조로, 다른 13편의 설화들과 내용이 달라서 이번 논의에서 제외되었지만, 다른 아시아의 나라에서 모두가 첫 번째 띠에 관심을 가질 때, 왜 캄보디아는 마지막 자리에 있는 돼지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며, 평소 가지고 있었던 돼지의 상징적 표상의 의미를 확장해 보는 상호문화 감수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는 지식 교육의 1단계로 나라별로 이주민 설화를 접해 볼 수 있다. 서사구조가 비슷한 아시아의 이주민들이 구술한 13편의 <열두 띠 유래>는 어떤 동물이 경쟁으로 첫 번째가 되었는지, 어떤 동물이 열두 띠에 들어가고, 동물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어떤 동물이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유래를 알려주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열두 띠 이야기>도 비슷한 서사구조다. 아시아 열두 띠 이야기의 공통적인 서사와 변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하늘(신)에서 열두 띠를 정한다고 한다.

② 열두 띠에 들어가기 위해 동물들이 경쟁한다. (달리기, 크기, 뜨는 해 보기)

②-1. 쥐가 고양이에게 출발 날짜를 다음날로 알려준다. (일본, 중국)

③ 쥐가 소(물소, 낙타)를 지략으로 이겨서 첫 번째 동물이 된다.

③-1. '빨리 들어온 순'으로 정한다는 말을 듣고, 걸음이 느린 소가 하루 일찍 출발했는데, 쥐가 소(물소)의 등에 타고 가서 1등을 한다. (한국, 일본, 베트남)

③-2. '크기순'으로 정한다는 말을 듣고, 쥐는 가장 앞서 걷던 소의 머리 위에서 다리를 쭉 뻗고 서자, 사람들이 '그 쥐가 참 크다'라는 말을 들어 첫 번째 동물이 된다. (중국)

③-3. '뜨는 해를 먼저 보는 순'으로 열두 띠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쥐가 낙타에게 깨워준다고 하자, 낙타가 잠이 들어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쥐는 첫 번째 동물이 되었다. (카자흐스탄)

③-4. '뜨는 해를 먼저 보는' 동물이 첫 번째 동물이 되기로 했는데, 쥐가 낙타의 등에 타고 서쪽을 바라보다 빛을 먼저 보고 첫 번째 동물이 되었다. (몽골)

④ 다른 동물들이 순차적으로 열두 띠 동물이 된다.

④-1. 자고 일어난 고양이는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이후에 쥐를 잡아먹게 되었다. (일본, 중국)

④-2. 낙타가 억울해하자, 신이 낙타에게 열두 띠 동물의 특징을 하나씩  
가지게 했다. (몽골 자료번호 2)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문화교육 2단계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열두 띠의 이야기를 전승하면서도 자신의 나라에서 친근한 동물들이 이야기의 화소가 되어 조금씩 추가되거나 변이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서사단락을 정리해 볼 때, 어느 서사단락에서 변이가 생성되는지를 알 수 있다. 베트남 설화에서 농사를 도와주는 물소가 소 대신 들어가고, 토끼 대신 자신의 문화에서 친근한 고양이가 들어가고, 양 대신 베트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염소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베트남의 풍토와 문화적 특성이 열두 띠에 반영된 것이다. 일본 설화에서는 고양이를 친근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드러나는데, 쥐가 소에게 이긴 것보다 고양이가 쥐에게 속아서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더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돼지 대신 멧돼지가 들어가 있다. 낙타와 친근한 유목민족인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는 소 대신 낙타가 '뜨는 해를 먼저 보기'의 내기를 통해 첫 번째 자리를 두고 쥐와 경쟁을 한다. 공통적인 서사단락에 집중할 때는 차이를 최소화하며 친밀함을 느끼고, 연대의식을 가지게 한다. 변이가 발생하는 서사단락에 흥미를 느낄 때는 서로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전승 그대로 각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3.2. 동물 표상에 함의된 문화인식의 맥락 생성

‘열두 띠’라는 아시아에서 유사한 화소로 구성된 여러 나라 설화를 비교하다 보면 서사적으로 차이가 생긴 지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긴다. ‘동물’의 상징으로 문화를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서사적 질문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런 서사적 궁금함은 다른 문화에 관한 관심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문화적 차이의 인식을 서사적으로 맥락화하며 가치를 생성할

때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장에서는 문화교육의 5단계 과정 중, 3단계로 나라별로 설화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동물표상이 어떤 삶과 문화의 대립자질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4단계로 각 나라별 차이가 발생하여 변이된 설화의 동물 표상의 대립자질이 어떤 삶과 문화의 맥락을 형성하는지 서사적 질문을 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해석을 해 보고자 한다. 각 나라의 특징적인 동물의 대립을 찾아가며 그 의미 맥락을 서사적으로 질문하고 해석하고 문화적 인식을 맥락화 하며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는 5단계의 문화수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 3.2.1. 일본 : 쥐와 고양이의 대립

자료 10번의 일본 설화는 한국의 설화와 비슷한 서사구조로 전승되는데, 한국의 설화는 쥐와 소의 대립에 서사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료 10번, 11번의 일본 출신의 제보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고양이가 왜 열두 띠에 들어가지 않았는지의 내력을 구연한 것이 특징이다.

<p>옛날에 신이 지상의 동물들에게 신정 첫째 날 선착순으로 열두 번째까지 오는 동물에게 매해 번갈아 가면서 동물의 왕 지위를 주겠다고 했다. 이때 고양이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의 공지를 듣지 못하여 쥐에게 그 내용을 물었다. 쥐는 고양이에겐 낱짜를 거것으로 알려주고 자신은 일찍 출발하는 소 뒤에 타고 출발했다. 호랑이와 토끼는 서로 속도경쟁을 하면서 갔다. 용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뱀은 기어서 갔다. 말과 양은 함께 출발했는데 말이 양과 같이 가느라 속도가 줄자 양이 말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개와 원숭이는 사이가 안 좋아서 가는 내내 싸웠다. 그래서 닭이 그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면서 들어갔다. 멧돼지는 장소를 착각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느라 꼴찌를 했다. 고양이는 낱짜를 잘못 알아서 선착순 안에 들지 못했고 그 후로 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p>
-자료번호 10번

언뜻 보면 한국의 설화와 비슷하지만, 이주민이 구연하는 과정에서 쥐가 소등에서 뛰어내려 1등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예 생략되면서, 고양이가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고양이야,  
“동물들이 난리 치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쥐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쥐가 거짓말을 하죠.  
“아, 이게 신정 1월 1일 말고 1월 2일에 신한테 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아, 그럼 고양이야,  
‘아, 그럼 조금 자다가 1월 2일에 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1월 1일이라고 알죠.  
소는 항상 준비성이 있으니까 소는 자기가,  
‘걷는 게 느리니까 미리 나가야 되겠다.’  
해서 마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쥐는 머리가 좋아요. 피가 있으  
니까 쥐는,  
‘그러면 소 뒤에 타면 내가 걷는 것도 빨리 걸을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다.’  
해가지고 등에 탄 거죠. 그랬더니 소가 등에 뭔가 느꼈어요. 등에 뭔가 있  
는 거 같은데 소 성격이 좋으니까,  
“그냥 가자.”  
해서 갔어요. 근데 쥐는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간 거죠.  
그랬더니 그다음에 호랑이하고 토끼죠.

-자료번호 10 <고양이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한 이유> 중-

끝까지 결승점 앞에서 쥐가 소등에서 뛰어내려 1등을 하는 부분은 언급  
되지 않는 데 반해, 고양이가 열두 띠에서 빠지게 된 것은 온전히 구술되고  
있다. 자료번호 11번의 또 다른 일본 체보자인 마즈다 타마미 체보자가 구  
연한 설화에서 쥐가 고양이에게 날짜를 잘 못 알려줘서 열두 띠에 들어가  
지 못한 내력만을 이야기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이러한 변이는 고양이가  
왜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했고, 왜 쥐와 사이가 좋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서사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게 된다. 어떤 순서로 들어왔  
는지가 간략히 서술되고, 멧돼지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점이 다른 나라  
설화와 차이가 있다. 돼지와 비슷하지만, 멧돼지로 굳이 변이된 것은 크게  
동물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더 친밀하게 생각하는 동물로 바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멧돼지는 열두 띠로 바뀌어 들어갈 수 있지만, 친밀한 고양이와 열두 띠에 들어갈 자리는 열두 띠 밖의 자리이다. 고양이를 선호하는 일본의 민족성으로 논의된 바 있지만<sup>38)</sup>, 한국과 중국(자료번호 12번)에서도 고양이가 쥐 때문에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전승되기도 하므로 동아시아 전반으로 시야를 확장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1등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쥐:소’의 대립자질보다 ‘쥐:고양이’의 대립자질이 더 서사적 초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동물이 열두 띠에 들어갔는가’보다 ‘인간과 친밀한 동물인 고양이가 왜 배제되었는가?’, ‘고양이가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쥐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의 서사적 질문을 생성할 수 있다. 자료 12번의 중국의 이주민 설화도 일본설화와 마찬가지로 열두 띠에서 배제되는 고양이가 등장한다. 두 나라 설화를 세심하게 비교해보면 일본은 ‘고양이가 왜 빠지게 되었는가’에 맞춰진 이야기라면, 이후에 살펴볼 중국 이주민의 설화는 ‘고양이가 왜 쥐를 잡아먹게 되었는가’에 답하는 이야기다. 잠이 많은 고양이는 농경사회에서 소처럼 큰 의미가 있지 않지만, 모든 내기를 이기고 수장이 된 쥐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다. 쥐는 술수와 속임의 특성으로 고양이를 배제하고, 소도 지략으로 이겨서 열두 띠의 수장이 되지만, 고양이라는 천적을 가지게 된다. ‘아웃사이더의 힘, 세계질서를 뒤흔드는 힘이 고양이 같은 존재에게서 나온다는 역설<sup>39)</sup>’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화가 나서 쥐를 짹 물었어요. 그때 쥐를 처음 잡아본 거예요, 고양이가. 화가 나가지구. 원래 자기 친구인데. 목을 잡아가지고 쥐가 죽었어요. 그 후부터 고양이하고 쥐는 계속 붙잡고 붙잡히는 관계로 지금까지 예, 이렇게 오고 있대요.

-자료번호 12 <열두 띠 동물과 천적>-

38) 이종관, 앞의 논문, 33쪽.

39) 신동훈, 『옛이야기의 힘』, 나무의 서재, 2020, 334쪽.

열두 띠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첫 번째인 쥐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는 존재인 고양이가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의 ‘외부’에 있게 되는 구조이다. 결국 ‘쥐 : 고양이’의 대결구도는 문화의 ‘내부 : 외부’의 자질로 다시 대립된다. 이때, 고양이는 ‘문화에 배제된 존재’ 까지도 그 문화를 구성하게 하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맥락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열두 띠라고 명명된 문화에 순차적으로 들어간 동물들만이 아니라, 문화 밖의 배제된 존재 역시 문화를 흔들 힘이 있다는 사유를 통해, 문화의 ‘안과 밖’, 문화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된다. 더 나아가 자문화는 문화 밖의 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며, 재구성되어 가는 과정임을 통찰할 수 있다.

### 3.2.2. 카자흐스탄, 몽골 : 쥐와 낙타의 대립

유목문화인 몽골과 카자흐스탄에서 친근한 동물은 ‘낙타’다. 이 문화권에서는 ‘친근한 낙타가 왜 열두 띠에 빠지게 되었는가’에 서사적 질문으로 이야기가 변이되어 있다. 이들은 낙타가 유리할 것 같은 ‘뜨는 해를 먼저 보기’로 띠의 첫 번째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인다. 카자흐스탄의 낙타는 고양이처럼 쥐에게 속아 잠이 드는데,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열두 띠에 속하는 동물과 낙타가 모여 해가 뜨는 모습을 본 순서대로 띠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키가 작은 쥐가 춤다며 피를 부려 낙타의 혹에 올라가 기다리다가 해가 뜨면 낙타에게 알려주겠다고 했다. 낙타가 쥐의 말을 믿고 잠이 들었고 해가 뜨자 쥐가 제일 먼저 해를 봤다고 소리쳤다. 쥐의 속임에 넘어간 낙타는 열두 띠에 들지 못하게 됐다.

-자료번호 8번-

카자흐스탄에는 총 여섯 개의 동물 띠가 있다. 말, 소, 개, 닭, 양, 쥐로, 이 중에서 먼저 해를 본 동물이 한 해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낙타 등 위에서 해를 먼저 본 쥐가 한 해의 시작이 되었고, 낙타는 결국 띠 동물에서 제외되었다.

자료번호 7번-

카자흐스탄의 설화에서는 낙타가 졸려 하자 쥐가 해 뜰 때 깨워주겠다고

하고, 낙타가 쥐의 말을 믿고 자다가, 결국 열두 동물이 다 들어간 후에 일어나서,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서사적 요점을 통해 ‘쥐 : 낙타’의 대결구도가 서사의 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두 띠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낙타는 ‘고양이’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국, 한국 설화에서 고양이가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첫 번째인 쥐를 잡아먹게 됨으로써 문화 밖에 있어도 대등한 힘을 갖게 하는 것과는 달리, 유목민족의 문화와 친숙한 낙타는 쥐의 술수에 저서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정서까지 전승되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대립과 대결구도를 통해 쥐는 ‘술수 : 불신’의 자질이, 낙타는 ‘정도 : 신뢰’의 자질까지 확장된다. 속임과 술수로 인해 유목민족과 가까운 동물이 빠진 것이다. 열두 띠 동물 이야기에는 농경문화 중심의 사유가 들어가 있다. 유목민족을 상징하는 낙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은 열두 띠 문화의 수장인 쥐의 속임수 때문이다. 일본과 카자흐스탄 설화에서 ‘문화 안에 있는 동물’보다 ‘문화 밖의 동물’ 표상에 정서적 감정을 투영하는 맥락에는, 농경문화를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진 열두 띠라는 문화적 틀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문화적 태도가 함의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 명의 몽골 출신 이주민이 들려준 설화 역시 낙타가 어떻게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의 내용이지만 서사적 맥락에는 차이가 있다.

옛날에 열두 띠를 정하는데 첫 번째 동물이 정해지지 않았다. 쥐가 첫 번째 띠가 되고 싶어 낙타에게 연혁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물었고, 낙타가 바람을 불어서 쥐를 연혁나라에 보내 주었다. 쥐가 원숭이를 만나서 어떻게 띠에 들어갔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춤을 잘 춰서 들어갔다고 했다. 쥐가 호랑이에게 물어봤더니 힘이 세고 잘생겨서 들어갔고, 토끼는 달리기를 잘해서, 용은 물을 잘 뿜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쥐가 낙타에게 이야기하니 낙타는 자신이 열두 띠 동물의 성격을 다 가졌으니 자신이 첫 번째 띠가 될 거라고 했다. 쥐와 낙타는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첫 번째 띠가 되기로 했다. 낙타가 자신은 동쪽을 볼 테니, 쥐는 서쪽을 보라고 했는데, 밤이 되어 무서운 쥐는 낙타에게 혹 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했다. 낙타는 혹보다 목이 더 길어서 먼저 볼 거라고 생각하고 허락했다. 쥐가 낙타의 혹 위에 올라가 서쪽의 해가 올라오는 빛의 그림자를 보고 뜨는 해를 먼저 보았다고 외쳐서, 쥐가 첫 번째 띠가 되었다.

-자료번호 5번-

몽골설화는 쥐가 열두 띠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다른 동물에게 물어보러 다니다 보니, 열두 띠 동물들의 장점이 나열되는 것이 재밌다. 첫 번째 자리를 정하는 기준으로 ‘뜨는 해 먼저 보기’로 하였는데, 밤이 되자 쥐가 출다고 낙타 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했다. 낙타는 자신이 쥐보다 커서 먼저 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출다는 쥐를 혹에 올라오게 허락하고 대신 서쪽을 보게 한다. 그런데 서쪽을 보고 있던 쥐가 해를 먼저 보게 된다. 해보다 빛이 먼저 올라와서 서쪽을 비출 때 쥐가 해가 뜨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 몽골설화가 보여주는 가장 큰 발상의 전환이다.

일본과 카자흐스탄, 몽골의 이야기를 모두 접하게 되고 나면, 열두 동물의 이야기지만 열세 동물의 이야기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띠의 자리는 열두 자리인데, 띠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동물은 열세 동물이다. ‘열두 자리 : 열세 동물’의 대립으로 본다면, ‘12 : 13’의 숫자 대립으로 ‘내부 : 외부’, ‘문화의 안 : 문화의 밖’, 의 대립자질을 확장하며, 열두 띠라는 문화에서 빠진 낙타와 고양이가 이야기의 한 축을 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5편의 몽골 설화에서 낙타는 모든 동물의 장점을 자신이 다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가 될 거라고 자신하는 반면에, 자료 2번의 멀얼게렐 제보자는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해 슬퍼하는 낙타를 보고 하느님이 낙타에게 열두 띠 동물의 모든 특징을 가지게 한다는 내용의 변이가 있다. 낙타는 열두 띠 문화의 외부에 있지만, 모든 동물의 특성을 가진 가장 능력 있는 동물로, 열두 띠의 동물과 대등한 하나의 동물이 된다. ‘열두 동물 대 낙타’를 ‘12 : 1’의 대립자질로 표상해 볼 수 있다. 자료 2번 낙타의 동물 표상은 일본의 설화에서 문화 밖을 상징하는 고양이의 의미로 생성되지 않았던, 안과 밖의 대립자질이 형성된다. 열두 동물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낙타의 모습이 표상되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1이 문화 안의 12와 동등한 힘을 가지게 되는 맥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단계의 문화 밖의 존재가

오히려 그 문화적 특성을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문화적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열두 띠’ 문화의 밖에 있는 고양이나 낙타는 오히려 열두 띠 문화의 서사적 균형을 맞추는 힘 있는 동물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고양이와 낙타처럼 ‘문화에 소외된 사람들이 가지는 힘의 역설을 긍정하게 하는 맥락’을 생성해 볼 수 있고, 자문화와 타문화의 관계를 통찰하게 하는 시야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 3.2.3. 베트남 : 쥐와 물소, 고양이와 토끼의 대립

베트남 설화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전승되는 〈열두 띠 유래〉와 서사적 구조는 동일하다. 동아시아 설화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설화에서도 열두 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화소’가 ‘달리기’이다. 걷는 게 느린 물소는 다른 동물들보다 하루 일찍 출발하는데, 이를 쥐가 알아차리고, 물소의 뿔에 몰래 타고 가서 첫 번째 띠가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열두 동물에서 변이가 발생하는 점이 흥미롭다. 자료 9번 베트남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동물들이 자주 싸웠다. 그래서 하늘에서 동물들을 초대하여 도착하는 순서대로 동물의 순서를 정하기로 하였다. 부지런한 물소가 아침 일찍 서둘러 나왔다. 그런데 쥐가 물소 뿔 위에 올라타고 오다가 도착지점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쥐가 일등을 하고 물소가 이등을 하였다. 베트남의 십이간지는 쥐, 물소, 호랑이, 고양이, 용, 뱀, 말, 염소, 원숭이, 닭, 개, 돼지이다.

-자료번호 9번-

베트남 설화는 열두 띠의 동물들을 자신들의 문화와 친숙한 동물로 바꾸었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자료 9번은 물소가 들어간 이유와 다른 동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구술이다. 소가 물소로 바뀐 것처럼, 양 역시 베트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염소로 바뀌었는데, 일본의 열두 띠에 돼지 대신 멧돼지로 변이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원래 ‘열두 띠로 전승된

동물'과 '자문화와 더 가까운 동물'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중국 설화에서 문화적으로 친밀한 고양이가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열두 띠의 수장을 잡아먹는 힘이 있는 동물이 되는 이야기가 첨가되고, 몽골 설화에서는 문화적으로 친밀한 낙타에게 열두 띠의 특성을 하나씩 가지게 하는 것으로 더 친밀하지만 열두 띠에 빠진 대상에 대해 균형을 맞춘다면, 베트남 설화에서는 자신의 문화와 '거리가 있지만 전승되는 동물'과 자신의 문화와 '가까운 동물' 중, 자신의 문화와 가까운 동물을 열두 띠 문화에 넣는 것으로 변이를 생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다른 동물들은 유사한 동물 내에서 대체되는 것에 반해서 토끼 대신 고양이가 들어간 것은 어떤 문화적 맥락이 있기 때문인지 서사적으로 궁금해진다. 토끼와 고양이 두 동물은 유사성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선행연구들에서는 토끼가 고양이로 바뀐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토끼 묘(卯)와 고양이 묘(猫)의 한자가 헷갈렸기 때문이라는 논의도 있지만, 고양이가 열두 띠에 있는 나라는 베트남 이외에도 이집트, 바빌로니아, 불가리아 등의 나라에도 있으므로,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sup>40)</sup> 고양이가 열두 띠에 들어간 나라 중에는 한자권 문화가 아닌 나라도 있으므로 표기와 발음의 혼동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물소와 염소가 열두 띠에 들어간 것을 보면, 베트남은 다른 문화들과 달리 전해온 동물표상을 그대로 전승하기보다는, 자신의 문화와 가까운 것으로 동물표상을 대체하고 자신들의 문화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조사자: 그, 고양이가 많아요? 베트남에?]

엔티터번: 네.

[조사자: 아, 토끼는 별로 없어요?]

호티흥녀: 있긴 있는데.

[조사자: 토끼도 많이 있어요?]

---

40) To Minh Tung·구사회, 앞의 논문, 984쪽.

엔터터번: 토끼 있는데 원래 키우는 사람만 있어요. 그냥 잘 안 봐요, 토끼.  
자연 거 안 봐요.

-자료번호 9 <쥐가 열두 띠의 첫 번째가 된 이유>

베트남의 자연에서는 토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구연자의 설명이다. 베트남의 <열두 띠 유래> 설화에서 보인 동물의 변이는 문화를 수용하고 적용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베트남 설화에 담긴 문화적 태도를 확장해 간다면, 아직 조사가 되지 않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더라도, 태국에는 왜 돼지가 빠지고 코끼리가 들어가고, 인도는 호랑이 대신 사자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갈 수 있게 된다.

### 3.2.4. 중국 : 쥐와 소의 대립

중국과 일본, 한국, 베트남에서는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를 기준으로 띠가 정해진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다양하게 열두 띠 이야기를 전승하는데, 그중 자료 12번의 한국계 중국 출신의 류정애 체보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신이 ‘크기순’으로 첫 번째 동물을 정하는 변이가 생성된 특징이 있다. 크기순이라면 가장 큰 소가 첫 번째 띠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달리기는 쥐가 소의 등에 몰래 타고 와서 이겼다고 하지만, 크기순일 때도 어떻게 쥐가 첫 번째 띠가 되었는지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하늘나라에 도착한 쥐는 가장 큰 소가 우선순위에서 1위를 하자 자기가 더 크다고 우겼고, 옥황상제는 그림 가장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간 쥐는 가장 앞서 걷던 소의 머리 위에서 다리를 쭉 뻗고 서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쥐가 참 크다고 말했다. 그 덕에 쥐가 1위, 소가 2위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쥐에게 고양이가 왜 깨워주지 않았냐고 물었고, 쥐는 내가 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화가 나 쥐를 물어버렸고 이후 지금의 고양이와 쥐의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자료번호 12번-

쥐는 가장 앞서 걷던 소의 머리 위에서 대자로 팔다리를 쭉 뻗고서 있다.

사람들이 ‘그 쥐가 참 크다’라고 말해서, 그 덕에 쥐가 1위, 소가 2위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정말 소보다 쥐가 커서가 아니라, 쥐치고는 크다는 것이다. 쥐가 소 등에 타고 가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뛰어난 지략을 보게 하는 구술자료이다. 중국 이주민의 이야기는 쥐가 가진 지략과 속임의 경계에서, 약삭빠른 쥐의 부정적 이미지를 기발한 꾀와 발상을 전환하는 힘을 가진 이미지로 바꾸며, 쥐의 지략에 더 주목하게 한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모든 아시아 열두 띠 설화의 공통점이 있다. 신은 쥐의 속임, 술수, 지략을 모두 인정하며 쥐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첫 번째의 띠가 되게 한다는 점이다. 한국, 일본, 베트남, 중국에서 전승되는 달리기의 순서로 띠의 순서가 정해지는 내용에서 소의 머리에서 뛰어내린 쥐의 술수를 신은 다 아는데도 쥐를 첫 번째로 인정한다. ‘왜 신은 쥐의 술수를 아는데도 정직한 소, 물소, 낙타가 아닌 쥐를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일까?’ 하는 서사적 질문을 하게 되는 지점이다. 이를 통해 쥐의 어떤 점이 신이 첫 번째로 인정하게 한 것일까 하는 질문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고, 쥐가 가진 속성에 대해 복수적 준거를 마련해 갈 수 있게 된다.

### 3.3. 쥐 표상을 활용한 문화적 매개의 가치생산

3단계와 4단계에서 동물 표상이 상징하는 대립자질과 서사적 질문으로 문화 인식을 맥락화 하여 이해한 후에 5단계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5단계는 아시아의 열두 띠 설화에 나타난 동물표상의 문화적인 차이를 통해 생성될 수 있는 통합적 가치가 무엇인지 주목해 보는 단계이다.

13편 설화의 핵심화소는 소와 낙타를 넘어서는 ‘쥐’이다. 아시아 열두 띠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쥐는 각 문화를 대변하는 대상과 경쟁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쥐가 농경문화를 상징하는 소와 유목문화를 상징하는 낙타를 이기는 반전이 있는 이야기다. 이를 바탕으로 “소와 낙타는 농경문화와 유목문화를 대표하는 동물들인데 왜 보이지도 않는 쥐



에게 지는 것일까?”로 문화적 경계를 통합한 서사적 질문을 생성할 수 있다. 몽골과 카자흐스탄 등의 유목민족들은 낙타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 낙타는 유목문화를 대변하는 동물로 쥐보다 유목민족에게 친근한 동물이다. 소는 한국,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농사를 짓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동물이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친근한 동물이다. 인간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인간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소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인내, 우직함, 여유로움뿐만 아니라, 대지적 속성으로 확장되어 풍요로움과 모성적 자애로움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설화 속에서는 하루 먼저 출발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소인데, 쥐의 지략 혹은 술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몽골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쥐에 대한 문화적 상징을 다르게 확장될 수 있다. 몽골 이야기에서 어떻게 동쪽을 바라보는 낙타보다 쥐가 서쪽에서 해를 볼 수 있었을까? 이는 다른 나라 설화의 쥐가 보여주었던 속임과 술수와는 다른 쥐의 속성을 보여준다. 해는 동쪽에서 뜨지만 쥐는 서쪽에서 해의 그림자를 본다. 낙타는 이미 뜬 해를 본다. 하지만 쥐는 아직 어두울 때 서쪽에서 다가오는 어스름한 빛을 감지하는 지혜로운 존재이다.

몽골설화에서 쥐는 동물들을 하나씩 만나며 열두 띠에 들어간 경위를 묻는다. 동물들은 쥐에게 자신의 장점을 말해 준다. 한국, 중국, 일본의 설화에서도 보면, 쥐는 여기저기를 다니며 다른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이를 쥐가 가진 소통능력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쥐는 그 소통능력으로 소가 하루를 먼저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을 알아내기도 하고, 빠를 것 같은 용맹한 호랑이가 아닌 소의 등에 타게 되는 것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처럼 쥐는 관찰하고,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능력이 있다. 타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물어보고 경청하며 소통하기에 ‘어둠에서 빛을 볼 영민한 지혜’<sup>41)</sup>가 있는 존재가 된다.

쥐는 소처럼 농경문화를 대변하거나, 낙타처럼 유목문화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특정 문화를 대표하는 뿌리 깊은 속성은 없지만, 모든 동물과 소통하고 넓은 시야로 흐름을 파악한다. 이와 같은 쥐의 소통능력은 성실한 소와 용맹한 호랑이도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 된다. 누가 먼저 출발하는지 살피고, 다른 동물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피는 쥐의 이와 같은 특성은 바로 상호문화 감수성에서 말하는 마지막 통합의 단계인 '문화적 매개'의 태도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쥐는 장점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가진 특성을 전면에 드러나게 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모든 동물 표상으로 형상화된 문화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징적 존재다. 반면에 농경문화를 상징하는 소는 작고 보잘것없는 쥐를 경계하지 않아 자신의 등에 태우거나 탔어도 모르고, 유목문화를 상징하는 낙타는 작은 쥐의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아시아 열두 띠 설화에서 쥐는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소 위에 있었고, 유목문화를 대표하는 낙타 위에 있었다. 존재감이 작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소와 낙타가 가진 문화적 속성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쥐였기 때문이다.

본 논의에서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쥐의 표상을 활용하여, 대학의 수업에서 '문화의 진정한 리더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으로 리더에 대한 대안적 가치를 더욱 확장해 보기도 했다. 낙타가 자신이 다른 동물들이 지닌 특성을 자신이 모두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에 안주한 것과 달리, 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쥐가 소와 경쟁할 때는 기발한 꾀로 발상의 전환을 보이기도 했다. 유목민족을 표상하는 낙타와 농경민족을 표상하는 소보다 모든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쥐는 경계를 허물고 고정관념을 뒤집어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는 존재라는 점에서, 큰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십이지의 수장이자 문화적 리더의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논의로 확장해 볼 수 있었다.

---

41) 신동훈, 「옛날 옛적 쥐이야기」, 『민속소식 경자년 십이월 호』, 2019.

이처럼 아시아 〈열두 띠 유래〉 설화의 동물표상의 문화적 함의를 해석해 가는 과정에서, 문화와 타문화의 경계를 유연하게 하며, 문화의 안팎을 통찰하는 시야로 문화적 가치를 생성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 광포 설화인 〈열두 띠 유래〉처럼 아시아에 비슷한 서사구조로 전승되는 이야기는, 각 나라의 문화가 함의되어 변이되어 전승되는 지점에 주목해 볼 때, 그 차이가 무엇인지 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해 보는 과정에서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문화적 가치를 생성해 보는 과정에서 차이에 대한 통합을 경험하게 되어, 궁극적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해 갈 수 있게 한다.

#### 4. 결론

이 글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구술한 〈열두 띠 유래〉를 활용해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는 교수전략으로 각 나라의 이주민이 구술한 열두 띠 설화를 제시하고, 문화적 맥락을 생성하는 해석의 문화교육 내용을 구체화한 연구이다.

2장에서는 상호문화 감수성의 이론적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이주민 설화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주민이 구술한 〈열두 띠 유래〉 설화들의 상징적 표상은 ‘동물’로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는데, 이때 다양한 동물 표상이 다른 나라의 문화들과 어떻게 다른지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기호화된 상징의 문화적 함의로 해석해 가며,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5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는 아시아 지역에 널리 유사한 형태로 퍼져 있는 광포 설화의 특징을 가진 〈열두 띠 유래〉 설화를 듣거나 읽으며 접하게 되는 단계로, 여러 나라에 비슷하게 전승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멀다고 느꼈던 나라의 문화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친밀함을 느끼며, 아시아인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 감수성 중 ‘차이에 대한 최소화’를 경험한다. 2단계는 설화의 구술적 특성으로

각 나라의 문화가 담겨 변이된 맥락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때 문화의 다름을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차이에 대한 수용’을 경험할 수 있다. 3단계는 〈열두 띠 유래〉의 이주민 설화의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동물의 상징성이 어떤 가치를 생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동물 간의 대립으로 어떤 대립자질이 생성되는지에 주목하며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는 단계이다. 4단계는 모국의 설화와 다른 지점이나 문화적 차이가 느껴져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지점들에 대해 동물 표상으로 서사적 질문을 해 보는 것이다. 대립자질로 인해 생성되는 삶의 문제, 문화의 가치 등에 대해 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사적 질문을 생성하고 답을 해보며, 설화를 스스로 해석해 보는 방식으로 다른 문화의 설화가 변이되어 생성되는 타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와 소통을 능동적으로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5단계는 자문화와 타문화로 구분하는 태도를 넘어서, 아시아 설화라는 커다란 문화의 틀을 확장해 가는 문화적 경험을 통해 민족적 경계를 넘나드는 민족상대주의의 태도를 생성해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이주민이 구술한 아시아 〈열두 띠 유래〉를 중심으로 상호문화 감수성을 실현해 볼 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해 보았다. 일본설화에서 ‘쥐 : 고양이’의 대립자질은 문화의 ‘내부 : 외부’의 자질로 다시 대립되어, 고양이는 ‘문화에 배제된 존재’만이 아니라 열두띠 문화의 수장을 흔들 수 있는 내적 힘이 있는 존재라는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 일본과 카자흐스탄, 몽골의 이야기를 모두 접하게 되고 나면, 열두 동물의 이야기지만 열세 동물의 이야기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띠의 자리는 열두 자리인데, 띠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동물은 열세 동물이다. ‘12 : 13’의 숫자 대립으로 ‘문화의 안 : 문화의 밖’, ‘내부 : 외부’의 대립자질을 확장할 수 있었다. 베트남 설화에서는 열두 띠 문화 밖의 동물이 자문화와 친숙하다면 열두 띠 문화에 친숙한 동물을 넣는 것으로 문화의 변화를 대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쥐는 소처럼 농경문화나, 낙타처럼 유목문화를 대변하지는 않는

다. 특정 문화를 대표하는 뿌리 깊은 속성은 없지만, 모든 동물과 소통하고 넓은 시야로 흐름을 파악한다. 쥐의 이와 같은 상징적 표상은 바로 상호문화 감수성에서 말하는 마지막 통합의 단계인 '문화적 매개'의 태도로 보았다. 쥐는 장점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가진 특성을 전면에 드러나게 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모든 동물표상으로 상징되는 문화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해석했다.

이주민이 구술한 열두 띠 이야기를 접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동물로 접해 보는 것이다. 이주민이 설화를 구술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나라의 문화를 '상징적 표상'으로 차이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소통의 과정이기도 하다. 〈열두 띠 유래〉 이외에도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에는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상징적 표상으로 자연관, 인간관, 운명관 등이 함께 전승된다.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는 여러 나라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비교할 주제가 무궁무진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야기형식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며, 그 문화의 상징성을 기억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구술설화이기 때문이다. 곧 이주민 설화의 자료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웹으로 공개되고, 자료가 출판된다면 더 많은 문화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상징적 표상을 활용한 문화적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동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교육 방안 연구 -유학생 대상의 플립 드 러닝 방식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39, 동화와번역연구소, 2020, 39-62쪽.
- 김민수,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가능성」, 『문학치료연구』 4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165-195쪽.
- 김영순·오영섭,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 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8-3, 한국국제교류문학학회, 2019, 47-74쪽.
- 김정은, 「설화의 서사문법을 활용한 자기발견과 치유의 이야기 창작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정은, 「이주민 구술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201-238쪽.
- 김하나, 이인재, 「교과교육학 : 초등학생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온라인 그림동화 프로그램의 효과」, 『윤리교육연구』 33,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1-25쪽.
- 나수호,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체성과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회, 2018, 145-178쪽.
- 박현숙, 「이주민 구술설화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회, 2018, 179-229쪽.
- 선주원, 「상호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학교육의 내용과 학습 활동」, 『국제이해연구』 1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7, 89-120쪽.
- 송영숙, 「일본의 십이지(十二支) 동물 민담의 유형 및 양상」, 국내석사학위논문 全南大學校, 2005.
- 신동훈,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281-323쪽.
- 신동훈, 「옛날 옛적 쥐이야기」, 『민속소식 경자년 십이월 호』, 국립민속박물관, 2019.
- 신동훈, 『옛이야기의 힘』, 나무의 서재, 2020.
- 양민정, 「「나무꾼과 선녀」형 설화의 비교를 통한 다문화 가정의 가족의 가족의식 교육 연구-한국, 베트남, 몽골 설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 연구』

- 15-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2, 45-65쪽.
- 양희석, 「띠와 쥐의 설화」, 『中國文學』 65, 아시아문화학술원, 2010, 49-66쪽.
- 윤창열, 「십간과 십이지에 관한 고찰」, 『논문집』 4-1, 대전대학교, 1985, 425-442쪽.
- 오정미, 「설화를 통한 정주자 대상의 문화교육 : 설화〈밥 안 먹는 색시〉를 대상으로」, 『동화와번역』 28,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4, 195-216쪽.
- 오정미,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한국구비문학회, 2017, 187-211쪽.
- 오정미,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2020, 1281-1298쪽.
- 이성희, 「다문화역량 신장을 위한 동아시아 이야기 콘텐츠의 주제론적 접근: 〈콩쥐팍쥐〉와 〈첩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문화와평화』 11,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37-58쪽.
- 이성희, 「다문화시대 상호문화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 구비문학 읽기-〈뱀신랑-AT425.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구렁덩덩신선비〉를 중심으로-」, 『온지논총』58, 온지학회, 2019, 339-365쪽.
- 이종관, 「십이지(十二地)와 “띠” 문화에 관한 근원적 고찰」, 『인문사회』 21,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17-36쪽.
- 이종관,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의 십이지 동물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019.
- 이찬욱, 『한국의 띠문화』, 황금시대, 1999.
- 이태열, 「최근 국제 혼인 증가의 특징」, KIRI 리포트(포커스), 2020.
- 이혜란, 「다문화사회의 설화교육 방안 연구-한국〈아기장수전설〉과 필리핀 〈알리구온전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0.
- 장현정·우신영,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5,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2019, 759-788쪽.
- 정근미, 「모국 설화집 구성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주의 문화 교육 방안 연구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대상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20.
- 조영미,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대만 대학교의 부

- 전공 과정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79, 이중언어학회, 2020, 249-276쪽.
- 천진기, 『韓國 띠動物의 象徵體系 研究』, 국내박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1.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 6. 30.
-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131-147쪽.
- 최원오, 「구비문학을 통한 다문화적 소통 방향에 대한 제언」,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59-82쪽.
- 하은하, 「한국어교육을 위한 동아시아 설화 비교 연구-한국, 베트남, 태국의 <나무꾼과 선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31, 서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7, 73-116쪽.
- 한용택, 「Bennett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시안」, 『시민인문학』 32,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07-136쪽.
- 황혜진, 「베트남 이주민 구술설화 자료의 현황과 성격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4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55-197쪽.
- To Minh Tung, 구사회, 「한국과 베트남의 띠 문화 비교: 한국의 토기 띠와 베트남의 고양이 띠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1,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963-996쪽.
- Chaves, Rose-Marie, *L'interculturel en classe*, PUG, 2013; 서영지 옮김, 『알기쉬운 교실상호문화교육』, 북코리아, 2019.
- Carlo, Maddalena., *de, Interculturel*, CLE INTERNATIONAL, 1998; 장한엽 옮김,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한울, 2011.
- Jung, Carl Gustav, *Man and his symbols*, DELL, 2005;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07.
- Lévi-Strauss, Claude., (*La*) *pansee sauvage*, Plon, 1983; 안정남 옮김, 『야생의 사고』, 1999, 한길사.
- Bennett, M. J.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ME: Intercultural Press, 1993, pp.21~71.
- \* 이 논문은 2021년 2월 21일 투고되어 3월 15일 심사 완료하고 3월 15일 게재 확정함.



<Abstract>

Cultural education for boost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using twelve zodiac animal symbols from  
Asian folktales:

a focus on the oral folktale data of immigrants in Korea

Kim Jung-Eu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a teaching strategy to increase intercultural sensitivity using “The Origin of Twelve Zodiac Animals,” as narrated by Asian immigrants from various countries living in Korea, as the cultural context. The tales’ common thread is the use of animals as symbols. However, the animals and their behaviors vary from one culture to another, suggesting different cultural values. Discussing these differences can enhance intercultural sensitivity. This study presents a teaching strategy in five steps to increase intercultural sensitivity by engaging students in interpreting the animal symbols’ cultural implications. The teaching strategy’s content builds intercultural sensitivity by discussing and interpreting the real and mutant animals’ representations in “The Origin of Twelve Zodiac Animals.” By highlighting how different cultures use different and even opposite descriptions of the animals’ traits and behaviors, the course uncovers the backgrounds and histories that have formed each country’s cultural values. For example, Japanese and Chinese folktales describe a conflict between a mouse and a cat, whereas Kazakh and Mongolian folktales

describe a similar conflict, except theirs feature a mouse and a camel. The folktales compiled from Japan, China, Kazakhstan, and Mongolia depict confrontations between thirteen animals vying for twelve positions; this set of confrontations has cultural mean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various animals can be seen as “inside the culture” vs. “outside the culture,” allowing us to see the culture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n cultu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aning created by the cultural implications of the different animal representations—examining, for example, why some cultures chose a mouse and a cow while others chose a mouse and a camel by delving into the roles of specific animals in each culture. Mice do not have the same deep-rooted attributes that symbolize cultural traits; in contrast, cows represent agricultural cultures, and camels represent nomadic cultures. However, mice do have symbolic characteristics: they are found near (and thus could “communicate” with) nearly all other types of animals, and in their travels, can grasp the flow of a community with a wide field of view. Thus, they can symbolize connections and communications—ways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in and between cultures. Therefore, mice are interpreted as the head of the twelve zodiac cultures in most countries’ stories; they are the mediators, the final stage of integration in intercultural sensitivity. This paper proposes using this concrete educational content on the twelve zodiac animal folktales to enhance intercultural sensibility.

**Keywords:** twelve zodiac animals of Asia, intercultural sensibility, cultural mediation, oral folktales of immigrants in Korea, Mongolian folktales, Kazakh folktales, Chinese folktales, Japanese folktales, Vietnamese folktales